

##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방과학기술의 역할

김 영 민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전 합참전략기획 본부장)

최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話頭는 북 핵/미사일일 것이다. 6.25가 끝나고 慘憺한 戰禍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군사대국의 班列에 들어섰다고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한지도 어언 십 수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찌서, 무엇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威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휴전선 지뢰도발, 소형무인기도발에 대한 뒷북 대응에 이어 계속되는 4, 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挑發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安保現實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對應方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방안 전반에 관해 근본적인 再檢討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 우리의 현실적 측면도 인정하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국방력을 너무 하드웨어적인 군사력 위주의 構築에 올인한 측면이 많았으며, 이 또한 적의 위협에 끌려 다니는 듯 수동적 방어 위주의 군사력 구축 측면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深海中에서 공격하면 모두가 잠수함에, 水上으로 공격하면 모두가 대형함정에, 空中로 공격 조짐이 보이면 防空에 올인 해 왔던 것은 아니었던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지는 1950년대 말 부터였으며,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그 위협에 대해서도 수없이 논의해 왔었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졌는가? 아니다, 수없이 위협을 경고하고 나름대로 대비도 해왔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북한의 固體燃料를 사용한 미사일 개발에 놀라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納得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一抹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일부 국민들은 일본의 국방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다고들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해군력을 제외하고는 客觀的인 指標로도 우리가 열세劣勢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아마 이는 일본의 경제력과 技術力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력은 그렇다 치고 최근 일본의 첨단 精密誘導 기술은 미국의 SM-3에 접목됨으로서 일본의 이지스함에 SM-3가 장착될 수 있었으나, 우리의 현실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과 論難을 빚는 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의 國力에 대해 信賴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우리도 일본처럼 X-band 레이더 관련 첨단기술이나, 고고도 요격 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THAAD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면 THAAD 배치문제로 중국이 지금처럼 행동하였을까요? 중국은 핵, 대륙간 탄도탄(ICBM), 공격용 레이저무기 등 첨단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領空防禦를 위한 防禦武器를 갖는데 그것도 공격이 불가능한 레이더 배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무뎠하게 대처하는 중국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빠른 길은 우리의 안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을 先除的으로 抑制하고, 나아가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우리도 積極的이며 能動的인 對應能力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능력은 현재처럼 海外에 依存하는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중·장기적 最優先 과제는 우리 현실에 맞는 世界 崔 尖端 과학 技術을 識別하여, 技術 力을 早期에 確保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우거나 물어 볼 수가 없으며 필요기술의 식별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위한 核心技術 중 하나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推進汽管 기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최근 世界 軍事強國들의 尖端武器 開發趨勢에 따르면 과거의 質量이나 體積을 통한 대량 공격무기 개발에서 최근에는 速度와 精密度에 의한 Pin Point 공격 가능무기 개발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수 있는 기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할 기술로서 空氣 추진기관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時點에 최근 國內外 공기추진기관을 활용한 新武器 開發 現況 및 발전추세와 공기추진 기관의 發展過程, 향후 國防科學 核心 技術로서 空氣추진기관의 發展 方向 등에 대해 論議하고자 한다.